

제94회 춘향제 '춘향, Color愛 반하다'

남원시, 5월 10~16일 광한루원 일원서 개최...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제94회 춘향제를 '춘향, 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올 제94회 춘향제를 공연예술과 시민참여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 높은 축제를 지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의 100회를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관광상품들을 개발해 춘향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올 춘향제의 특징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춘향제에 맞는 시대 캐릭터 코스튬, 퍼레이드, 의상체험 등으로 모두가 즐기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 거리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며, 처음 선보이는 뮤지컬 춘

향,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콘서트, 불꽃축하쇼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춘향제 기간에 맞춰 합인행사를 진행하는 춘향 페스타로 쇼핑의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합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체험쿠폰,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러한 고도화된 콘텐츠와 확대된 프로그램들로 제94회 춘향제 목표 방문객을 100만 명으로 설정, 이를 통해 남원시 전라도권을 넘어 전국구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6년 후인 100회에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도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가면서 더욱 성장하고 신명나는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4회 춘향제 포스터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2월 7일까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를 슐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

익산시, 2월 7일까지 슐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이웃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미술 수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전시까지 한다니 진짜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은 시민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익산 시민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이 전시회를 통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2월 7일까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를 슐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작품은 지난해 7~11월까지 수업을 참여했던 41팀(280여명)이 매주 2시간씩 12회차를 함께 해 완성한 성과물이다. 팀은 20대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꾸려졌다.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춘포면에 모여 살게된 다섯 자매와 동네 주민들로 이루어진 '희희낙락' 팀은 익산의 아름다운 자연에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했다. '낭산작

은 아씨들' 팀은 미술 교육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낭산면의 엄마들이 직접 기초 소양을 습득해 엄마표 홈스쿨링을 진행하고자 1시민 1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가 시민들은 '1시민 1미술' 프로그램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수업을 들으면서 온전한 나를 위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꾸준히 노력해 작은 전시회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070-4172-646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새로운 전복, 특별한 기회! 양성평등에서 답을 찾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별관 1층에서 양성평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전복, 특별한 기회! 양성평등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양성평등 전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여성정책관과, 김원정 한국어성정책연구

원 양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의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례와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박용근 도의원과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을 비롯해 여성단체대표, 시민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양성평등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도민의 기대와 목소리를

모으고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단은 시의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 의제 개발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정책토론회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통합, 다기능 복합기관으로 2023년 9월 출범했다. /장은성 기자

미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적근거 마련... 문체부, 3월 설명회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 내의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가 높아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사찰은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하지만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봐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향후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뉴시스

신간도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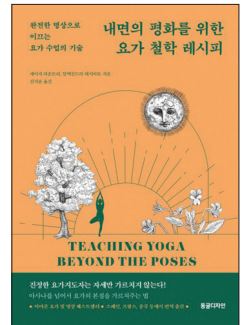
요가는 몸과 마음을 모두 가꾼다. 기원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요가는 긴 역사만큼이나 깊은 철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

요가를 하면서 몸 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요가의 매력으로 꼽힌다.

책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동글디자인)는 내면의 평화에 다다른 공극의 요가 수업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파나사드, 요가수트라, 바가비드 기타 등 경전에 기반한 요가 철학을 비롯해 절기, 인용구, 만트라 등 내적 수련에 활용할 수 있는 54가지 수업 주제를 선별해 소개한다.

해당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과 시, 아사나와 함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들



을 함께 수록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업 계획을 돕는다.

방대한 요가 철학을 녹여낸 54가지의 다채로운 수업 주제와 함께 명상을 돕는 노래, 시, 인용구는 물론 주제를 소화하기에 적합한 아사나, 수업의 각 단계에서 강사가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까지 제공한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